



10일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LNG 실증 설비' 착공식에서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왼쪽 다섯번째)과 김준철 조선소장(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기업 및 선급 주요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업계 최초 'LNG 실증 설비' 착공 삼성중, 시장 지배력 굳힌다

차세대 기술 내재화로 경쟁력 강화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제품 관련 시장 확대에 대비하고 지배력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10일 거제조선소에서 '조선·해양 LNG 통합 실증 설비'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첫 삽을 뜬 LNG 통합 실증 설비는 삼성중공업이 독자 개발 중인 ▲차세대 천연가스 재액화, 액화 공정 설계 ▲부유식 천연가스 공급 설비의 효율 향상을 위한 신냉매 활용 공법 ▲극저온 단열 저장용기 등 LNG 핵심 기술들의 성능 검증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시설이다.

실증 설비는 거제조선소 내 3630㎡(1100평) 부지에 조성되며 오는 2020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착공식은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과 그리스(GASLOG), 이탈리아(ENI), 말레이시아(PETRONAS), 영국(Lloyd), 노르웨이(DNV-GI)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주요 선급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실증 설비가 완공되면 LNG 관련 신기술의 실증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돼 차세대 기술의 적용을 더욱 앞당길 수 있고, 기술 내재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LNG 제품의 원가절감·성능 차별화를 통한 삼성중공업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해양 액화 실증 설비도 같이 구축함으로써 FLNG 등 강점을 갖고 있는 해양 플랜트 분야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삼성중공업은 국내 업체의 LNG 핵심 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LNG선 운영을 위한 선원 교육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산업계 발전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척의 LNG운반선을 수주했으며, FLNG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발주된 4척 중 3척을 수주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정연우 기자 yw964@



LG전자가 기능을 업그레이드 한 프라엘 플러스를 출시한다. /LG전자

효능 극대화 'LG 프라엘 플러스' 출시

LG전자, 4종 풀라인업 모두 개선 구입고객 40만원 캐시백 이벤트

LG전자는 11일 뷰티 마스크 LG 프라엘을 업그레이드한 'LG 프라엘 플러스'를 국내에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프라엘 플러스는 안전성과 효능을 높인 프라엘 2019년형 제품이다. 4종 풀라인업을 모두 개선했다.

더마 LED 마스크는 LG이노텍 LED를 탑재해 9분간 최적의 LED 광량을 유지해준다. 피부톤과 탄력 개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함이다.

선 효과를 준다. 피부와 손이 닿는 부위를 임플란트에 쓰이는 소재와 인체에 무해한 실리콘 소재를 적용했다. 갈바니 이온 부스터는 화장품 흡수를 촉진하는 기능을 하며, 피부와 닿는 헤드 면적을 40% 확대해 효과를 극대화했다. 듀얼 브러시 클렌저는 미세모에 실리콘 브러시까지 함께 제공한다. 피부 타입과 사용 목적에 따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가격은 제품별로 34만9000~119만9000원이다. 7월 말까지 프라엘 플러스 4종을 동시에 구입하는 고객에는 40만원 캐시백과 여행용 파우치를 무상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현대차, GM·BMW 출신 서주호 디자이너 영입

미래 車 디자인 혁신 가속화



서주호 현대차 상무

트렌드 변화 선제 대응, 경쟁력 강화 디자인 외 영역과 융합·협업 도모

현대자동차가 또 한 명의 세계적 자동차 디자이너를 영입하고 글로벌 디자인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현대차는 GM 및 BMW 등에서 디자인 경험을 두루 거친 서주호 디자이너를 현대디자인이노베이션실 상무로 영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현대차에 합류하는 서 상무는 미래 디자인 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혁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행 디자인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양산차의 선행 디자인 외에도 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디자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디자인 외 영역과의 융합, 협업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 상무는 치열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

서 가장 성공한 한국인 디자이너 중 하나로 꼽히는 인물이다.

미국 '포켓 인스티튜트'에서 산업디자인 학사·석사과정을 밟은 뒤 1999년 GM그룹에 입사해 다양한 내·외장 선행 및 양산 디자인 프로젝트로 경험을 쌓았다. 당시 서 상무가 외장 디자인을 맡은 GMC의 콘셉트카 '그라니트'는 2010년 개최된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올해의 디자인'에 선정되면서 업계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2년에 BMW로 자리를 옮겨 선행 디자인을 담당하며 BMW 3과 8시리즈, X5, X6 등의 선행 디자인 프로젝트

KT, 세계 최초 5G 스마트골프장 구축

골프존카운티와 MOU 체결 120도 스윙 매트릭스뷰 등 올 가을 안성H서 첫 서비스

KT는 골프존카운티와 1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골프존조이마루에서 세계 최초 5G 스마트골프장 구축 및 제휴서비스 공동 출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골프존카운티는 골프존뉴디그룹 내 골프코스서비스 전문회사다. 현재 국내 11개, 해외 3개소의 골프장을 운영 중인 국내 최대 골프장 운영 전문기업이다. 2018년 MBK파트너스의 투자를 유치했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골프코스 체인 비즈니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MOU를 통해 양사는 ▲5G 스



골프존카운티 서상현 대표(왼쪽)와 KT 이필재 마케팅부문장이 5G 스마트골프장 공동 구축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마트 골프장 구축 및 관련 부가서비스 출시 등 '신사업' 분야 ▲AI 기반 로봇 안내서비스 및 자율주행 카트 시스템 공동개발 등 'R&D' 분야 ▲멤버십 및

B2B상품 홍보 등 '공동 마케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올 가을 골프존카운티 안성H에서 첫 선을 보일 5G 스마트골프장에서는 주요 홀에 120도 스윙 매트릭스뷰 촬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스윙 모습과 볼 궤적을 매트릭스 뷰로 알아볼 수 있다. 향후에는 해당 영상에 스윙폼 분석 서비스를 접목해 스윙 폼 교정 및 레슨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양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골프 레저산업 간의 혁신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골프존카운티가 보유한 골프분야에서의 빅데이터 및 운영 노하우와 KT가 가진 5G 등 첨단 기술역량을 결합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T맵 켜고 제주도 관광지 할인 받으세요"

SKT-스타모빌리티 T맵×스타쿠폰 서비스 출시

SK텔레콤은 제주지역 차량공유 및 할인쿠폰 판매업체인 스타모빌리티와 함께 'T맵'을 통해 제주도의 주요 관광 명소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는 'T맵×스타쿠폰' 서비스를 1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T맵×스타쿠폰은 제주도 전역의 99개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커피 전문점 등을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제주 관광객 특화서비스다. 이번



서비스는 T맵 이용자들이 제주지역 관광지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T맵×스타쿠폰은 위치 기반과 목적지 검색 기반 두 가지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위치 기반으로 이용할 경우 T맵 내에서 관련 배너를 클릭하거나 제

주도에서 T맵을 켜면 나오는 팝업창을 클릭하면, 별도 페이지를 통해 T맵 사용자의 현 위치 기준 반경 10km 내 할인가로 이용 가능한 관광지를 가까운 거리 순으로 보여준다.

T맵을 통해 검색한 목적지가 할인가 이용 가능한 관광지일 경우 상단에 할인을 위한 쿠폰 구매 여부를 팝업창 형태로 안내한다.

양사는 향후 스타모빌리티 운전자를 대상으로 SK텔레콤의 운전점수를 활용한 안전운전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의 운전점수를 확인해 안전운전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